

# “페퍼저축은행서 제2의 배구 인생 시작합니다”

최민지 은퇴 전력분석관 전향 부상 고민하다 구단 제안 수락 지난 9일 조선대서 유소년 지도 “열심히 배워 인생2막 열겠다”

“전력분석관으로 제2의 배구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센터 최민지(22)가 은퇴를 선언하고 전력분석관과 유소년코치로 새로운 배구 인생의 문을 열었다.

강릉여고를 졸업한 최민지는 2018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했다. 고교 졸업반 때는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재목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2020-2021시즌 기업은행전에서 교체 출전한 최민지는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우측 슬관절 슬개골 탈골 및 골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프로 3년 차를 보낸 최민지는 특별지명을 통해 두 번째 소속팀 페퍼저축은행의 유니폼을 입었다. 창단팀인 만큼 출전 기회가 많아지면서 새 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다졌으나 무릎 부상으로 쉽지 않은 시즌을 보냈다.

고민 끝에 은퇴를 결정한 최민지는 전력

분석관과 유소년 코치로 제2의 배구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최민지는 “생각보다 빨리 은퇴를 해서 많이 아쉽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시즌 후반에 많은 고민을 했다. 휴가 때 감독님, 대표님과 함께 면담했는데 구단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제안해주셨다. 고민 끝에 새로운 길을 가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분석관에 관심은 있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단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민지에게는 주전으로 나설 수 있었던 페퍼저축은행에서의 시간이 특별하다고 밝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는 “첫 주전 경기가 도로공사전이었다. 전 소속팀이기도 했고 처음 주전으로 나가기도 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감정이 교차했다”고 돌아봤다.

가장 힘든 순간에 대해서는 “부상 당했던 순간이다. 큰 부상은 처음이었다. 도로공사에 있을 때 언니들의 격려와 위로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V리그 통산 4시즌을 소화한 최민지는 28경기에 출전해 54점의 기록을 남겼다.

최민지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선수로서 이렇다 할 기록은 없지만 ‘배구 인생의 2막을 연 성공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배구는 내 인생의 절반 이상

을 함께한 애정 깊은 존재다”고 말했다.

최민지는 지난 9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유소년 배구코치로서의 일정도 소화했다. 그는 “유소년 배구는 엘리트 배구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엘리트 배구는 체계적이고 유소년 배구는 학생들이 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도 격려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다.

최민지는 “감독님께서 ‘새 기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하셨다. 나를 믿어 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다”며 “새 일들을 시작하게 됐다. 두 가지 일을 모두 잘 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지는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응원을 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수로서도 많은 응원 받았고 제2의 배구 인생도 많이 축하받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민지는 “선수로서 이렇다 할 기록은 없지만 ‘배구 인생의 2막을 연 성공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배구는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애정 깊은 존재다”고 말했다.



12일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청출어룸에서 페퍼저축은행과 조선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제공

## 페퍼저축은행-조선대, 유소년 배구팀 운영

프로그램·경기 운영 합의

페퍼저축은행과 조선대학교가 유소년 배구팀을 운영한다.

페퍼저축은행과 조선대는 12일 조선대 본관 2층 청출어룸에서 조선대 민영돈 총장, 페퍼저축은행 김동연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소년 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는 페퍼저축은행이 운영하는 광주 유소년배구팀의 운영 및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과 체육관을 제공기로 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유소년 관련 행사도 조선대에서 개최하

며 조선대 학생들을 위한 마케팅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대와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배구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최고의 유소년 배구팀 운영과 경기 인적자원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페퍼저축은행 단장은 “배구단 창단을 하게 된 광주에서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선대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돼 뜻깊다”며 “유소년 배구단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수비하는 샌디에이고 김하성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격수 김하성이 11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9회에 1타점 2루타를 치고 슬라이딩하는 콜로라도의 찰리 블랙몬을 상대로 수비하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6-5로 승리했다. /AP=연합뉴스

## 프로축구·여자프로배구 신생팀 생기나

대우조선해양건설 “준비 중” “고양시 연고 제안 여러 차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모기업으로 하는 데이원자산운용이 프로농구단 인수에 이어 프로축구와 프로배구단 창단도 준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은 12일 “프로축구단 창단을 준비 중”이라며 “연고지는 프로농구단과 같은 경기도 고양특례시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한컬링연맹회장이기도 한 김용빈 회장은 “이미 데이원자산운용이 오리는 프로농구단을 인수하면서 축구, 배구 등에도 팀을 창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프로축구는 2023시즌, 여자프로배구는 2023-2024시즌부터 참가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빈 회장은 “농구장인 고양체육관과 축구장인 고양종합운동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다”며 “고양시에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제안을 한 상태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은 “데이원자산운용에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을 구단주에 선임한 것처럼 축구도 같은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K2리그부터 시작해 이르면 시일 내에 K1으로 승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여자프로배구단 창단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그는 “여자배구는 바로 다음 시즌인 2022-2023시즌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며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연고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려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신청서를 내야 하고, 프로축구연맹은 이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된다.

현재 11개 팀이 있는 K2리그는 2023시즌부터 정주와 천안 연고 팀이 가세할 가능

성이 크고, 데이원자산운용까지 합류하면 단숨에 14개 팀으로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고, 고양종합운동장은 국가대표 경기도 치를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프로 구단이 홈 경기장으로 쓰기에 무리가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아직 고양시를 연고로 창단하겠다는 주제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 역시 “고양시를 연고로 프로축구단을 만들겠다는 제안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며 “데이원자산운용의 경우 프로농구 오리온을 인수한 곳이라 더 재계가 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검토나 논의까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자배구의 경우 현재 7개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어 데이원자산운용이 팀을 만들면 팀 수가 짝수인 8개가 되면서 리그 운영의 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 /연합뉴스

## 조선대 심거룡·양호승 핸드볼 태극마크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참가

조선대학교 양호승(20·RW)과 심거룡(19·LB)이 태극마크를 달고 제17회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에 나선다.

대한핸드볼협회는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리는 제17회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남자주니어대표선수 18명을 선발했으며 대표팀은 1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정호택 원광대 감독이 이끄는 주니어 대표팀은 이번 대한핸드볼 통합리그 우승팀 소속이자 성인국가대표팀에 발탁돼 훈련하고 있는 한국제대 이창우(GK), 송재우(LW)와 김태관(RB), 박주니(RB), 염진우(PV)가 선발됐다. 준우승팀인 원광대에서는 박지원(LB), 김대현(CB), 서다운(PV), 홍신의(GK)가 발탁됐다.

조선대에서는 심거룡과 양호승이 합류한 가운데 김오균 감독도 지도자로 함께 바레인으로 향했다.

이외에도 충남대, 위탁대, 경희대 소속 선수들을 포함한 유일한 고등학생으로 유망주로 주목받는 안영웅(LB·남한고)이 귀중한 국제무대 경험을 할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제17회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는



심거룡

양호승

8개국팀이 참가한다. 각국은 2개 조로 나누어 조별예선을 치른 뒤, 조별 상위 두 팀이 준결승으로 직행해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된다. 각 조 2위안에 들어 4강에 직행해야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한국은 A조에 속해 쿠웨이트(16일), 이란(18일), 사우디아라비아(20일)를 차례로 상대하게 된다. B조는 바레인, 일본, 인도, 파키스탄으로 구성됐다.

1988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남자 주니어핸드볼은 총 3번의 우승, 6번의 준우승, 3번의 3위를 기록했다. 직전대회인 2018년 제16회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는 일본을 연장 접전 끝에 꺾고 26년만의 정상탈환에 성공했다.

/최진화 기자

## 1·2학년 전국 대학축구연맹전 광주대·조선대·호남대 ‘8강 진출’

광주대학교와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가 제17회 1, 2학년 전국 대학축구연맹전 8강에 진출했다.

광주대는 12일 강원도 태백 고원2구장에서 열린 태백산기 제17회 1, 2학년대학축구연맹전 16강에서 한일장신대를 2-0으로 꺾었다.

광주대는 전반 8분 권순호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15분 김재연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대는 14일 선문대를 상대로 8강전을 치른다.

조선대는 이날 문경대와 16강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전반 36분 이효준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후반 30분에는 상대자책골을 더해 2골차 완승을 거뒀다.

조선대는 14일 호원대와 8강에서 4강 티켓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백두대간기에 나선 호남대는 지난 11일 한라대를 2-1로 제치고 8강에 올랐다. 호남대는 전반 9분 박성휘, 후반 18분 김영준이 연속골을 터트렸다. 한라대에 1실점했으나 1점차 리드를 지켜 승리했다.

호남대는 13일 김해대와 4강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제17회 1, 2학년 전국 대학축구연맹전은 59개팀이 참가해 태백 종합경기장의 6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백두대간기와 태백산기 2개 리그로 총 111경기를 치르며 조별예선을 통해 상위 16강 경기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진화 기자